

21. 읍의 고백

신앙고백

찬 송 :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

기 도 : 맑은이

말 씀 : 읍기 42장 1-9절

말씀묵상

읍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읍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읍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읍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읍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읍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 읍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2-3).

읍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읍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읍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도 읍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2. 읍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4-6).

읍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읍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의 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읍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읍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읍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7-9).

읍의 고난을 겪어서 지켜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섬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읍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읍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읍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읍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읍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맺는말

읍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읍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적용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새로 등록한 가족

등록번호	이 름	직 분	목 장	인 도 자
22-06	이 성 학	성도	3	이강우 장로님
22-07	김 남 영	성도	3	
22-08	김 종 식	성도	3	
22-09	김 학 태	성도	3	
22-10	장 인 록	성도	3	

1. 부활절 여섯째주일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주입니다. 주님의 부활소식을 널리 알리며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는 삶이되시길 바랍니다.

2. 임시 제직회 안내

오늘 2부예배 후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 - 부교역자 청빙의 건

3. 실시간 영상예배 중단 안내

6월부터 주일2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중단합니다.
대면예배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금안내

온라인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6. 임창세목사님의 용산제일교회 담임목사취임식 안내

일시 : 오늘(22일) 오후 3시(교회출발: 오후 2시)
장소 : 용산제일교회 본당(용산구 새창로 12길 11-18)

♣ 상회소식

[성남시찰수련회] - 23일(월)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둘레길
오전 8:30 둔전교회에서 출발

♣ 교우소식

[별세] - 故 노홍석성도님(추사순성도님 부군) : 8일(주일)
[현물] - 서인순집사님께서 떡을 현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담임목사 : 조 향 철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21호

부활절 여섯째주일
도시농어촌선교주일

2022. 5. 22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DOON JEON
둔전 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35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21. 시편 34편

참회기도

신앙고백

찬송 218장

기도 1부: 이말자 권사
2부: 최영란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33장 1-11절 (구약 50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 『형제 관계 회복하기』

조항철 목사

금주의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나라

5월 봉사위원

	5월 22일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예배기도	이말자	안혜자	정귀자	박상민
1부	최영란	유인숙	안준조	정시영
2부				
3부				

헌금위원

1부 : 정영숙 2부 : 나자금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현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20장	다같이
※축도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금요십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율	천광우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율

【창세기 33장 1-11절】

1 아곱이 눈을 들어 보니 서에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나라 ...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십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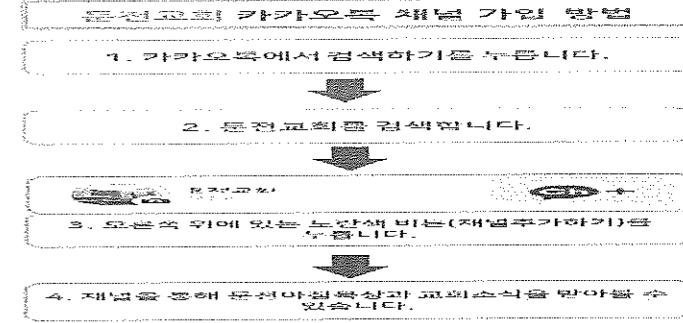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명생(인도네시아), 흥룡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심일조

강인석·심은영 남효정 박심원·윤관순 안홍욱 윤종찬·임신자 이군자 이상설·박옥년 이용배 이정훈 전옥자 정귀자 정재현 최광순 최명애·조남진 추사순 한규봉

◆ 감사현금

김주용 남효정 명민주 박부자 박상민 박은경 박재락 서인순 윤종찬 이순자 정귀자 정영숙 주영순 최미연 최영애·조남진 표금숙 황미선 무명3

◆ 부활절감사현금

추사순

◆ 선교현금

이만순 임완민 주영순 추사순

◆ 건축현금

김예진 김예찬 한춘우

주일현금	감사현금	심일조	부활절 감사현금	선교현금	건축현금
582,000	465,000	2,900,000	20,000	150,000	100,000

* 온라인현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